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맹자』에 나타난 항심(恒心)의
의의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학과
김 은 손

『맹자』에 나타난 항심(恒心)의
의의

Significance of the Constant Mind(恒心)
in the *Mencius*

2021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학과
김 은 손

『맹자』에 나타난 항심(恒心)의 의의

지도교수 이철승

이 논문을 고전번역학과 석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학과

김 은 손

김은손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최진규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재경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철승 (인)

2020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차

ABSTRACT	ii
한글초록	iv
제1장 서론	1
제2장 항(恒)과 항심(恒心)의 의미	5
1. 항(恒)의 자의(字義)	5
2. 『맹자』의 항심	9
제3장 항심과 인격 구현	12
1. 본성과 부동심	12
1) 본성과 항심	12
2) 부동심과 항심	16
2. 인격 구현의 방법과 의의	20
1) 자기반성	20
2) 선한 영향력	23
제4장 결론	26
【참고문헌】	28

ABSTRACT

Significance of the Constant Mind(恒心) in The *Mencius*

Kim Eun Son

Advisor : Prof. Lee Cheol Seung, Ph. D.

Translation of Sino-Korean Classic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In this paper, it explored the significance of the Constant Mind in the *Mencius*. Through this, it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the constant mind in various areas such as individual and society. It frequently happened to harm people due to the lack of morality in the society at that time. Mencius pursued the self-reliant human image of restoring one's own morality through self-discipline even in this situation. Mencius said, “truly without the constant mind, there is nothing you can't do like debauchery, flattery, wickedness, extravagance”. This means that the constant mind has to do with the morality that makes people have a touch of humanity.

Mencius emphasized the constant mind to keep morality constant and permanent. He regarded the inner morality as human nature. He thought that everyone is born with the good nature. He pursued a society of realizing good nature through this. Mencius emphasized the imperturbable mind which cannot be swayed, no matter the temptation, to keep morality constant. He thought that a vast-flowing

spirit and wise sayings would be necessary to achieve the imperturbable mind.

Mencius explained a vast-flowing spirit as closely related to human morality. He emphasized the action that one does not forget and practices constantly in order to develop a vast-flowing spirit. He insisted on wise sayings as another strength of the imperturbable mind along with a vast-flowing spirit. Mencius emphasized the maintenance of inner morality through wise sayings. According to Mencius, as a vast-flowing spirit and wise saying interact, the imperturbable mind is achieved. Mencius emphasized constant moral practice through this.

The constant mind in the *Mencius* implies its significance in terms of self-discipline and edification. The constant mind in the 『Mencius』 is significant in making the society peaceful and stable, as the mind affects others when cultivating one's own character.

Keywords: Mencius(孟子), constant(恒), constant mind(恒心), morality(道德性), human nature(本性), the imperturbable mind(不動心), self-reflection(自己反省), self-discipline(修養), edification(教化)

한글 초록

본 논문은 『맹자』에 나타난 향심의 의의에 관해 탐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심이 개인과 사회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니는 의의를 고찰하였다. 당시 사회는 도덕성의 부재로 사람을 해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맹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수양하여 자신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주체인 인간상을 추구하였다. 맹자는 “진실로 향심이 없으면 방탕함과 편벽함과 사특함과 사치함을 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향심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도덕성과 관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맹자는 도덕성을 일정하고 영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향심을 강조하였다. 그는 내면의 도덕성을 본성으로 여겼다. 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갖추고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선한 본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추구하였다. 맹자는 도덕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 부동심을 중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부동심을 이루기 위해서 호연지기와 지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사람의 도덕성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그는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항상 잊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행동을 강조하였다. 그는 호연지기와 함께 부동심의 또 다른 장점으로 지언을 내세웠다. 맹자는 지언을 통해 내면의 도덕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맹자에 의하면 호연지기와 지언이 상호 작용하여 부동심이 이루어지게 된다. 맹자는 이를 통해 꾸준한 도덕적 실천 행위를 강조하였다.

『맹자』에 나타난 향심은 수양과 교화의 측면에서 의의를 함축한다. 『맹자』에 나타난 향심은 나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쳐 사회를 평화롭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면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맹자, 향(恒), 향심, 도덕성, 본성, 부동심, 자기반성, 수양, 선한 영향력, 교화

제1장 서론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여러 제후국이 부국강병을 위해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던 사회였다. 맹자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학설을 주장하면서 노년에 『맹자(孟子)』를 저술하였다. 항심(恒心)은 『맹자』의 「양혜왕상(梁惠王上)」 7장과 「등문공상(滕文公上)」 3장에 나타난다. 맹자는 “진실로 항심이 없으면 방탕함과 편벽함과 사특함과 사치함을 하지 않음이 없다.”¹⁾라고 말하였다. 이는 항심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도덕성과 관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맹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仁)의 단서인 측은지심, 의(義)의 단서인 수오지심, 예(禮)의 단서인 사양지심, 지(智)의 단서인 시비지심 등을 갖추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추어진 인의예지의 도덕성을 사람의 내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맹자는 이러한 도덕성을 사람의 본성으로 여기면서 “사람의 본성이 선함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²⁾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선한 본성을 현실에 구현하는 일이야말로 당시의 혼란스러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³⁾ 맹자는 사람에게 도덕적 원천이 내재되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도덕성을 유지하고 키우는 방법인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제안하였다.⁴⁾ 그는 호연지기의 생성에 대해 “이는 의(義)를 축적하여 생기는 것이지, 의가 습(襲)하여 취해지는 것이 아니다. 행하여 마음에 흠족함이 없으면 굶주리게 된다.”⁵⁾라고 표현하면서 내면의 도덕성과 관련시킨다.⁶⁾ 『맹자』에 나타난 항심은 이러한 맹자의 관점을 반영한다.

항심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정치·사회·경제 등의 제도 문제와 관련된다. 고은강과 김정호와 유미림은 지배계층에 대한 정치적 역할을 분석하였고⁷⁾, 김영민과

1) 『孟子』, 「梁惠王上」: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2) 『孟子』, 「告子上」: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3) 이철승, 「유가 철학에 나타난 사람 본성론의 구조와 현실적 의미 - 성선설과 성악설의 구조와 의미를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제36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395~399쪽.

4) 김종현, 「‘의(義)’ 사상의 기원과 전개 : 춘추전국시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박사 논문, 2011, 10쪽.

5) 『孟子』, 「公孫丑上」: “是集義所生者, 非義襲而取之也. 行有不慊於心, 則餒矣.”

6) 이철승, 「孟자의 ‘浩然之氣’ 사상에 대한 朱熹와 王夫之의 관점 비교」, 『유교사상문화연구』 제57집, 한국유교학회, 2014, 118쪽.

박효정과 백남권과 유종국과 정태연은 사회복지 이념을 적용하였다.⁸⁾ 김정겸과 윤대식과 이수영과 정병현은 향산에 담긴 공리(公利)적 의미를 연구하였고⁹⁾, 방문정과 안병철과 정우식 등은 향심과 정치 제도를 관련지어 논하였다.¹⁰⁾ 오종일은 향심을 정전제와 같은 경제 제도와 연결하여 연구하였고¹¹⁾, 홍완표는 기업의 경제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서 향산을 연구하였다.¹²⁾ 손운경은 향심을 보존하기 위한 사회의 도덕적 역할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역할 구축의 방법으로 향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³⁾ 전병욱과 이애란 또한 사회경제적 토대인 향산을 분석하였다.¹⁴⁾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맹자의 정치·경제사상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맹자는 사람의 도덕성을 이익의 확보나 명예의 추구 등과 무관한 것

-
- 7) 고은강, 「선진(先秦) 유가 철학에서 위험사회론 -『맹자(孟子)』 ‘무항산(無恒産)’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제30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1. 김정호, 「유교 중심적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한계와 동아시아적 대안 가치의 모색」, 『정치정보연구』 제11집 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8. 유미림, 「지배의 정당성의 관점에서 본 맹자(孟子)의 정치사상」,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1호, 한국정치학회, 2004.
- 8) 김영민, 「맹자사상의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철학논집』 57호, 한국철학사연구회, 2018. 박효정, 「맹자의 社會福祉 思想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동아시아사상 문화학과 석사 논문, 2016. 백남권, 「선진 유가의 사회복지 사상 : 맹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논문, 2016. 유종국, 「맹자의 保民論이 지닌 사회보장적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제65집 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3.
- 9) 김정겸, 「先秦儒家의 "德" 思想에 관한 연구」, 동국대 철학과 박사 논문, 2018. 윤대식, 「『孟子』의 의리(義利)와 의리(義理):윤리적 교의에서 정치적 교의로의 전환」,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19집 1호, 한국시민윤리학회, 2006. 이수영, 「맹자의 正義觀에 관한 研究」, 고려대 윤리교육과 석사 논문, 2007. 정병현, 「맹자의 人性論에 관한 研究」, 동국대 철학과 박사 논문, 2016.
- 10) 방문정, 「맹자의 王道政治 思想 研究」,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석사 논문, 1986. 안병철, 「先秦儒家의 民本政治思想 研究」, 성균관대 유학과 박사 논문, 2006. 정우식, 「맹자의 王道政治思想 研究」, 성균관대 동아시아사상 문화학과 석사 논문, 2012.
- 11) 오종일, 「맹자의 정전론과 정전제도의 사상적 연원」, 『東洋哲學研究』 제37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 12) 홍완표, 「孟子 思想을 통한 企業經營哲學 研究」, 성균관대 유학과 박사 논문, 2009.
- 13) 손운경, 「맹자의 恒心論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 논문, 2010.
- 14) 전병욱, 「인(仁)과 서(恕): 욕망의 호혜적 공감능력 : 맹자(孟子)의 욕망관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41호,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0. 이애란, 「『맹자』 「곡속(穀觶)」장 분석을 통해 바라본 성선(性善)과 도덕적 확장」, 『유교사상문화연구』 제59집, 한국유교학회, 2015.

으로 생각하였다. 맹자에게 도덕성은 정치·경제적인 제도와 구별된다.¹⁵⁾ 『맹자』에 나타난 향심은 사람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다. 맹자는 향심을 통하여 사람이 자신의 도덕성을 깨닫기를 원하였다. 그는 도덕성을 본성으로 여기면서, 수양하는 인간상을 강조하였다. 맹자는 수양하는 사람이 인격을 완성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선한 영향력이 지속된다면 사회를 안정된 체계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맹자』에 나타난 향심을 정치·경제적인 의미의 향산과 구별함으로써 향심의 구현 방법과 사회적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맹자의 실천의식을 부각하면서 향심이 부족한 사람들의 실천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곧 이 글은 이러한 실천 방법의 지속성을 파악하고 사회의식의 영향력을 찾아 향심의 고유한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심(心)과 성(性)의 관계에 관한 맹자의 철학적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향심과 본성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과 긴밀히 연계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맹자』에 나타난 향심의 의의를 규명한다. 이는 향심과 내면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향심이 미치는 개인적 수양과 사회적 교화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향(恒)과 향심(恒心)의 의미를 탐구한다. 1절에서는 향(恒)의 자의(字義)를 밝힌다. 『논어』, 『서경』, 『시경』, 『주역』 등의 유가전적에 나타난 향(恒)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향은 영구함과 오래됨을 뜻한다. 2절에서는 『맹자』의 향심(恒心)을 분석한다. 『맹자』에 나타난 향심의 사상적 기반을 검토하면서, 이를 통해 본성과 향심의 연관성을 연구한다.

3장에서는 향심과 인격 구현에 대해 살펴본다. 1절에서는 본성과 부동심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1절 1항에서는 본성과 향심의 관계에 대해 논하였다. 맹자는 도덕성을 사람의 본성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사단을 인의예지의 실마리로 여긴다. 맹자는 사단의 확충을 통해 인의예지의 선한 본성이 구현되는 사회를 지향하였다. 그에게 호연지기의 배양은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과정이다.

1절 2항에서는 부동심과 향심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여기에서는 부동심을 중심으로 논한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내면의 도덕성과 긴밀하게 연결한다. 그는 호연지기와 지언을 통해 부동심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부동심은 어

15) 이철승, 「민주주의의 법치와 유가의 덕치 문제」, 『哲學研究』 106호, 철학연구회, 2014, 58~59쪽.

면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도덕성을 항구하게 지키는 향심의 결정체이다.

3장 2절에서는 인격 구현의 방법과 의의를 자기반성과 선한 영향력으로 나누어 언급하였다. 맹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도덕성을 수양하여 온전한 인격체로 확립되기를 원한다. 인격 구현의 방법에서는 매일 수신하고 반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한다. 맹자는 내면의 도덕성을 지속하기 위해 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교화를 통해 평화로운 사회상을 이루고자 하였다.

4장 결론에서는 『맹자』에서 나타난 향심을 통해 개인·사회 등 다양한 방면에 의의가 있음을 드러낸다.

제2장 항(恒)과 항심(恒心)의 의미

항(恒)은 영원함·항상 등을 뜻한다. 항은 유가 전적에서 도덕성을 유지하는 모양새를 표현한다. 맹자는 『맹자』에서 항심의 기반에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도덕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밝혔다.

1. 항(恒)의 자의(字義)

항(恒)에서 심(心)은 의미를 나타내고, 공(恒)은 소리를 나타낸다. 항은 천지 사이의 달을 따라 그렸다.¹⁶⁾ 달은 조각달에서 보름달로 차오른다. 보름달은 다시 조각달로 순환된다. 달은 이러한 과정을 보이며 하늘에 늘 변함없이 존재한다. 달의 영원함을 사람의 마음에 빚대어 좌변에 심(心)을 추가 하였다. 항(恒)은 소전(小篆)으로 제정될 때 항(恆)으로 변화하였다. 항(恆)은 예변(隸辨) 이후 항(恒)으로 규범화되었다.¹⁷⁾ 이러한 형태의 변화에 따라 항(恒)은 『설문해자』에서 항(恆)으로 표기되었다.

『설문해자』에서는 “항(恆)은 상(常)이다.……썩은 옛글로 항(恆)은 달[月]을 따랐다. 『시경』에 ‘달이 항구함 같구나.’라고 한다.”¹⁸⁾고 하였다. 『설문해자』의 저자인 허신이 썩라는 글자를 항(恆)과 관련하여 풀이하였으나, 현재까지도 허신이 설명한 글자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규범화된 글자인 항(恒)으로 통일하여 쓴다. 항(恒)은 상(常)을 뜻한다.

『시경』 「소아」의 천보편에서는 “하늘이 그대(임금)를 보호하고 안정시키니, 또한 매우 견고하게 하셨다. 그대에게 오직 두텁게 더하시니 어찌 복을 주지 않겠는가?……달이 항구함 같고, 해가 오르는 것 같으며, 남산의 수명과 같아 어그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다.”¹⁹⁾라고 하였다. 『시경집전』에서는 항(恒)을 상현달[上弦]의

16) 김성재, 『갑골에 새겨진 신화와 역사: 문자에 숨은 고대인의 삶을 찾아서』, 동녘, 2000, 656쪽.

17) 김태완, 『許愼의 고뇌, 蒼頡의 문자』,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259쪽.

18) 許愼 讚, 段玉裁 注, 『新添古音說文解字注』, 臺北:洪葉文化事業有限公司, 2013, 687쪽, “恆, 常也.……𠄎, 古文恆从月. 『詩』曰: ‘如月之恆.’”

19) 『詩經』 「小雅」, 天保篇: “天保定爾, 亦孔之固. 俾爾單厚, 何福不除?……如月之恆, 如日之升, 如南山之壽, 不騫不崩.”

뜻으로 설명하였다.²⁰⁾ 『시경』의 항(恒)은 달 자체의 의미보다 덕(德)이 영원히 지속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이는 항(恒)의 ‘오래됨’과 ‘영구함’ 등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항(恒)의 의미는 『주역』의 「항괘(恒卦)」에서 찾을 수 있다. 「단전(象傳)」에서는 “항(恒)은 구(久)이다.……하늘과 땅의 도는 항구(恒久)하여 그치지 않는다.……해와 달은 하늘을 얻어 오래 비출 수 있으며, 사계절은 변화하여 오래 이룰 수 있고, 성인이 그 도를 오랫동안 유지하여서 천하의 교화가 이루어지니, 그 항구함을 보면 천지 만물의 실정을 알 수 있다.”²¹⁾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항(恒)은 오래됨과 영구함을 뜻한다.

항괘는 천지의 자연 질서로 도(道)의 작용이 유행하는 모습을 설명하였다. 천지의 도가 항구하여 그치지 않아 천지가 순환함으로써 움직이고, 일월이 하늘을 얻어 오래 비추고, 사계절이 변화하여 오래 이루기에 어긋나지 않고 운행하여 만물이 생성된다. 한시도 끊어짐이 없는 항괘의 ‘항구불이(恒久不已)’는 도(道)의 본체라고 할 수 있다.²²⁾ 이를 통해 항(恒)에는 달, 오래됨, 영구함, 상(常)이라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경』과 『주역』을 통해 항(恒)이 덕(德)과 도(道)와 관련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항과 덕의 연관성은 『논어』에서 잘 나타난다.

공자가 말하였다. “남쪽 사람이 ‘사람에게 항구함이 없으면 무당이나 의원도 될 수 없다.’라고 말하였는데, 좋다!” “그 덕을 항상 유지하지 못하면 흑시라도 부끄러움을 당한다.” 공자가 말하였다. “점을 칠 필요가 없다.”²³⁾

공자는 항(恒)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속담과 『주역』을 인용하였다. 첫 번째는 남인의 속담으로 ‘사람에게 항구함이 없으면 무당이나 의원도 될 수 없다.’이다. 공자는 남인의 속담을 인용하여 사람에게 항구함이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

20) 朱熹, 『詩經集傳』 「小雅」, 天保篇: “恒, 弦.……月上弦而就盈.”

21) 『周易』, 「恒卦」: 象曰 “恒, 久也.……天地之道, 恒久而不已也.……日月得天而能久照, 四時變化而能久成, 聖人久於其道而天下化成, 觀其所恒, 而天地萬物之情可見矣.”

22) 문창호, 「구룡재 백봉래의 경학(經學) 일고(一考) - 『대학』과 『중용』의 관계를 중심으로」, 『儒學研究』 제38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7, 88쪽.

23) 『論語』, 「子路」: 子曰 “南人有言曰 ‘人而無恒, 不可以作巫醫’ 善夫!” “不恒其德, 或承之羞” 子曰 “不占而已矣.”

였다. 두 번째는 ‘그 덕을 항상 유지하지 못하면 혹시라도 부끄러움을 당한다.’이다. 이는 『주역』의 항괘 중에서 구삼효사(九三爻辭)이다. 이를 통해 『주역』과 『논어』의 관계를 살필 수 있다. 이는 덕을 지키는 것이 영구적이지 못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상전(象傳)」에서는 “그 덕을 항상 유지하지 못하면 용납될 것이 없다.”²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덕(德)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항(恒)을 강조한 것이자, 부단하고 항상 변치 않는 태도를 말한 것이다.²⁵⁾ 공자는 이러한 인용문을 사용하여 항(恒)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공자는 “성인을 내가 만날 수 없거든 군자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선인(善人)을 내가 만날 수 없거든 항구함(恒)이 있는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없는데 있는 척하고, 비었는데 가득한 척하고, 적으면서 큰 척하면 항구함이 있기 어렵다.”²⁶⁾라고 말하였다. 공자에게 ‘항구함이 있는 사람’은 덕을 항상 유지하고 있으므로 성인(聖人)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²⁷⁾ 이처럼 공자는 항과 덕을 긴밀하게 관계하는 것으로 여겼다.

『시경』과 『논어』에서는 항(恒)을 덕과 관련시켰고, 『주역』의 「항괘」에서는 하늘-달-사계절과 같은 자연의 도(道)로 설명하였다. 또한, 항은 『서경』, 「탕고(湯誥)」에서 성(性)과 관련된다. 「탕고」에서는 “오, 위대한 상제께서 백성에게 충(衷)을 내리셨다. 만약 항성이 있다면, 그 법칙을 편안히 하는 이는 오직 임금이다.”²⁸⁾라고 말하였다. 『상서정의』에서는 “충(衷)은 선(善)이다.”²⁹⁾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하늘이 내려주신 그 선(善)을 지속하는 것이 백성의 도리이고, 백성이 스스로 선을 지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덕을 베푸는 것이 군주의 사명인 점을 밝힌 것이다. 항성(恒性)은 사람이 상제로 상징되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성(性)의 주체로서 스스로 천성으로 돌아갈 것을 지향한다. 사람은 성(性)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

24) 『周易』, 「恒卦」: 象曰 “不恒其德, 無所容也.”

25) 안성재, 「民主主義를 위한 孔子의 常 修辭學 考察」, 『중국학』 제59집, 대한중국학회, 2017, 33쪽.

26) 『論語』, 「述而」: “聖人, 吾不得而見之矣, 得見君子者, 斯可矣. 善人, 吾不得而見之矣, 得見有恒者, 斯可矣. 亡而爲有, 虛而爲盈, 約而爲泰, 難乎有恒矣.”

27) 朱熹, 『論語集註』, 「述而」: “然未有不自有恒而能至於聖者也. 故章末申言有恆之義, 其示人入德之門, 可謂深切而著明矣.”

28) 『書經』, 「湯誥」: “惟皇上帝, 降衷於下民. 若有恒性, 克綏厥猷惟后.”

29) 李學勤 主編, 『十三經注疏 2』, 傳: 孔安國, 疏: 孔穎達, 「尚書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199쪽, “衷, 善也.”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을 항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할뿐더러, 선한 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맹자의 성선설이 여러 유가 전적을 통하여 유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³⁰⁾ 이를 통해 항(恒)과 선(善)과 성(性)이 연결되어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종합하자면, 항(恒)은 달·오래됨·영원함·항상이라는 뜻이 있다. 하지만 항(恒)의 달이라는 뜻은 『시경』 이후로 사용되지 않았다. 항(恒)은 도(道)·덕(德)·성(性)·선(善) 등과 연관성을 보인다. 그중에서도 항(恒)은 도와 덕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30) 박영진, 「『尙書』 ‘性’字와 그 含意」, 『大東文化研究』 제7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105~106쪽.

2. 『맹자』의 항심(恒心)

항(恒)은 도와 덕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항심(恒心)은 이러한 도덕과 매우 관련이 깊다. 항심(恒心)은 『맹자』의 「양혜왕상(梁惠王上)」 7장과 「등문공상(滕文公上)」 3장에 나타난다.

왕이 말하였다. “나는 어리석어서 여기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원하건대 선생님(맹자)께서 제 뜻을 도와서 분명하게 나를 가르쳐주십시오. 나는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청하건대 이를 시험해보겠습니다.” (맹자가) 말하였다.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는 사람은 오직 선비여야 할 수 있습니다. 백성과 같은 경우는 항산이 없으면 그로 인해 항심이 없습니다. 진실로 항심이 없으면 방탕함과 편벽함과 사특함과 사치함을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죄에 빠진 후에 따라가서 형벌을 주는 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³¹⁾

등문공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물었다. 맹자가 말하였다. “백성의 일은 늦출 수 없습니다.……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항산이 있는 사람이면 항심이 있고, 항산이 없는 사람이면 항심이 없습니다. 진실로 항심이 없으면 방탕함과 편벽함과 사특함과 사치함을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죄에 빠진 후에 따라가서 형벌을 주는 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³²⁾

첫 번째 인용문은 제나라 선왕과 맹자의 대화 내용이다. 맹자는 제선왕이 제사에서 죽임을 당할 소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자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여겼다. 맹자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백성에게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31) 『孟子』, 「梁惠王上」: 王曰 “吾慙, 不能進於是矣. 願夫子輔吾志, 明以教我. 我雖不敏, 請嘗試之.” 曰 “無恒產而有恒心者, 惟士爲能. 若民, 則無恒產,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於罪, 然後從而刑之, 是罔民也.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32) 『孟子』, 「滕文公上」: 滕文公問爲國. 孟子曰 “民事不可緩也.……民之爲道也, 有恒產者有恒心, 無恒產者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及陷乎罪, 然後從而刑之, 是罔民也. 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

그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술(仁術)이 실현될 것으로 여겼다.³³⁾ 왕이 ‘나는 혼미하여, 여기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은 맹자에게 인(仁)으로 나아갈 방법을 물어본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등문공과 맹자의 대화이다. 여기에서 맹자는 백성에게 향산이 없으면 향심이 없다고 확고하게 주장한다. 「양혜왕상」과 「등문공상」의 인용문에는 내용의 차이가 있으나, ‘진실로 향심이 없으면 방탕함과 편벽함과 사특함과 사치함을 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설명은 같다. 두 인용문의 차이점은 「양혜왕상」에 선비라는 계급층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전국시대 제후와 같은 계급층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끝없이 전쟁하면서 부국강병을 꿈꾸었다. 맹자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여러 군주에게 이익보다 도덕성에 기반을 둔 정치를 펼칠 것을 주장한다.³⁴⁾ 맹자는 도덕성을 이루어낸 군주의 인격을 통해 백성들을 교화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겼다. 이는 맹자가 “그 백성을 얻으면 이에 천하를 얻는다.”³⁵⁾라고 말한 점에서 나타난다. 맹자는 군주의 도덕성에 대해 “임금이 어질면 어질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임금이 의로우면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임금이 바르면 바르지 않는 사람이 없다.”³⁶⁾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맹자는 군주의 도덕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왕과 백성, 그리고 하늘을 연관 지어 도덕성의 근원을 찾으려 했던 맹자의 천명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맹자는 “하늘의 작위가 있고 사람의 작위가 있다. 인의 충신(仁義忠信)과 선을 좋아하여 게으르지 않은 것, 이것이 하늘의 작위이다.”³⁷⁾라고 말하였다. 이는 하늘이 사람에게 도덕성을 부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맹자의 천명사상에 의하면 하늘은 사람에게 도덕성을 부여하였고, 사람은 그 도덕성을 구

33) 『孟子』, 「梁惠王上」: 齊宣王問曰 “齊桓·晉文之事可得聞乎?” 孟子對曰 “仲尼之徒無道桓·文之事者, 是以後世無傳焉. 臣未之聞也. 無以, 則王乎?”……曰 “臣聞之胡斲, 曰: ‘王坐於堂上, 有牽牛而過堂下者, 王見之, 曰: ‘牛何之?’ 對曰: ‘將以饗鐘.’ 王曰: ‘舍之! 吾不忍其觶觫, 若無罪而就死地.’ 對曰: ‘然則廢饗鐘與?’ 曰: ‘何可廢也? 以羊易之!’” 不識. 有諸?” 曰 “有之.”…… 曰 “無傷也, 是乃仁術也, 見牛未見羊也. 君子之於禽獸也, 見其生, 不忍見其死, 聞其聲, 不忍食其肉. 是以君子遠庖廚也.”

34) 『孟子』, 「梁惠王上」: 孟子見梁惠王. 王曰 “叟不遠千里而來, 亦將有以利吾國乎?” 孟子對曰 “王何必曰: 利? 亦有仁義而已矣.”

35) 『孟子』, 「離婁上」: “得其民, 斯得天下矣.”

36) 『孟子』, 「離婁上」: “君仁莫不仁, 君義莫不義, 君正莫不正.”

37) 『孟子』, 「告子上」: “有天爵者, 有人爵者. 仁義忠信, 樂善不倦, 此天爵也.”

현해야 한다.

맹자는 사람이 동물과 미세한 차이로 구분되는 이유를 인의라는 도덕성으로 생각하였다.³⁸⁾ 그는 이러한 인의로 상징되는 도덕성을 사람들이 잃어버렸다고 여겼다.³⁹⁾ 맹자의 사유 기반에는 공자에 의해 다져진 도덕성을 근거로 당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가적 대안이 깃들여 있다.⁴⁰⁾ 공자는 사람의 도덕성을 내면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여기면서, 이러한 도덕적 상태를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선한 가치로 상정하였다.⁴¹⁾ 따라서 『맹자』에 나타난 항심의 기반에는 사람이 추구해야 하는 도덕성이 내재 되어 있다. 맹자는 사람이 도덕성을 계속 검토하고 날마다 수행하여 그 도덕성을 깨우치기를 바랐다.

38) 『孟子』, 「離婁下」: “人之所以異於禽於獸者幾希, 庶民去之, 君子存之. 舜明於庶物, 察於人倫, 由仁義行, 非行仁義也.”

39) 『孟子』, 「告子上」: “仁, 人心也, 義, 人路也. 舍其路而弗由, 放其心, 而不知求, 哀哉! 人有雞犬放, 則知求之, 有放心, 而不知求.”

40) 이철승, 「유가 철학에 나타난 사람 본성론의 구조와 현실적 의미 : 성선설과 성악설의 구조와 의미를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제36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399쪽.

41) 『論語』, 「顏淵」: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論語』, 「述而」: “仁遠乎哉? 我欲仁, 斯仁至矣.” 『論語』, 「顏淵」: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제3장 향심과 인격 구현

맹자는 향심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도덕성을 언급하였다. 그는 선한 본성을 영구하게 유지하여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맹자는 지속적인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 호연지기와 지언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도덕적인 행위인 수양을 통하여 인격을 구현하고, 수양하는 사람을 통해 교화되는 사회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맹자는 자기반성의 수양 방법을 통하여 본성이 유지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맹자의 수양 방식은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1. 본성과 부동심

1) 본성과 향심

맹자는 사람이 내면의 도덕성을 깨우치고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배양할 것을 주장하였다.⁴²⁾ 맹자는 호연지기의 모습을 도(道)와 의(義)에 짝하는 것으로 여겼다.⁴³⁾ 그는 이러한 호연지기에 대해 의를 축적하여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였다.⁴⁴⁾ 이는 맹자가 호연지기를 통해 사람의 본성을 회복하는 법을 언급한 것이다. 맹자는 본성을 선(善)하다고 생각하였다.⁴⁵⁾

맹자는 고자의 학설을 『맹자』 「고자상」을 통해 비판하였는데, 고자는 “성(性)은 선도 없고, 불선(不善)도 없다.”⁴⁶⁾라고 말하였다. 고자는 “성(性)은 버드나무와 같고, 의(義)는 술잔을 만드는 것과 같다. 사람의 본성으로 인의를 만드는 것은 버드

42) 이철승, 「유가 철학에 나타난 사람 본성론의 구조와 현실적 의미: 성선설과 성악설의 구조와 의미를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제36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118쪽.

43) 『孟子』, 「公孫丑上」: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 餒也.”

44) 『孟子』, 「公孫丑上」: “是集義所生者.”

45) 『孟子』, 「告子上」: “今日 ‘性善’, 然則彼皆非與?” 孟子曰 “乃若其情, 則可以爲善矣, 乃所謂善也.”

46) 『孟子』, 「告子上」: 告子曰 “性, 無善, 無不善也.”

나무로 술잔을 만드는 것과 같다.”⁴⁷⁾라고 말하였다. 고자에게 본성은 버드나무와 같으며, 의(義)는 어떠한 가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그릇과 같다. 고자의 관점에 의하면 본성은 버드나무와 같이 어떤 재료에 불과하다. 이러한 재료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물건으로써 쓰일 수 있다. 따라서 고자에게 본성은 가공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성립되는 것이며, 도덕성과 무관하다.

그러나 맹자는 “만일 장차 버드나무를 해쳐서 술잔을 만든다면, 또한 장차 사람을 해쳐서 인의를 만드는 것인가? 천하의 사람을 이끌고 인의를 해치는 것은 반드시 그대(고자)의 말이다.”⁴⁸⁾라고 비판하였다. 맹자의 관점에 의하면 생명체였던 버드나무로 술잔을 만드는 일은 버드나무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과 같다. 따라서 맹자는 본성을 억지로 바꾸는 일을 마치 사람을 죽이는 일과 같은 것으로 여긴다.

이처럼 맹자는 고자를 비판하면서, 내면의 도덕성이 사람에게 있음을 철저하게 강조하였다.⁴⁹⁾ 사람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맹자의 관점은 『맹자』 「공손추상(公孫丑上)」에 잘 나타난다.

맹자가 말하였다. “사람은 모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선왕께서도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곧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가 있었다.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으로써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를 행하면,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손바닥 위에 놓고 움직이는 것처럼 쉽다. 따라서 사람에게 모두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장차 우물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측은한 마음이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으려는 것이 아니고, 고을 친구들에게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며, 비난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본다면,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⁵⁰⁾

47) 『孟子』, 「告子上」: 告子曰: “性, 猶杞柳也, 義, 猶柎椀也. 以人性爲仁義, 猶以杞柳爲柎椀”

48) 『孟子』, 「告子上」: 孟子曰: “如將戕賊杞柳而以爲柎椀, 則亦將戕賊人以爲仁義與? 率天下之人而禍仁義者, 必子之言夫.”

49) 이철승, 「유가 철학에 나타난 사람 본성론의 구조와 현실적 의미: 성선설과 성악설의 구조와 의미를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제36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398쪽.

맹자는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측은지심’으로 표현하였다. 맹자에 의하면 사람은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떠한 조건 없이 측은한 마음이 든다. 맹자는 사람을 반드시 이러한 마음을 갖추고 태어나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측은지심 외에도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등이 갖추어진 것으로 생각하였다. 맹자는 측은지심을 인(仁)의 단서로, 수오지심은 의(義)의 단서로, 사양지심은 예(禮)의 단서로, 시비지심은 지(智)의 단서로 여겼다.⁵¹⁾ 이러한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사단(四端)이라고 부른다. 맹자는 사단을 통하여 본래 갖추어진 도덕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맹자에 의하면 인의예지는 도덕성 그 자체이며, 사단은 사람의 도덕성을 알려주는 올바른 신호판이다.

맹자는 이러한 사단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넓혀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맹자는 사람이 사단을 넓히는 모습을 처음 시작하는 불과 샘물에 비유하면서, 사단을 가득 채운다면 온 세상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여겼다.⁵²⁾ 이처럼 사단의 논리는 도덕성의 암시를 넘어서 도덕성의 사회적 실현을 보여준다. 따라서 도덕성의 실현은 곧 본성의 구현을 의미한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함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 같다.”⁵³⁾라고 표현하며, 본성이 선한 것으로 여겼다. 곧 맹자는 선한 본성을 현실에 구현하는 일이야말로 당시의 혼란스러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맹자의 관점에 의하면 도덕성이 실현되는 사회는 본성이 실천되는 사회이자 선이 구현되는 사회이다.⁵⁴⁾

맹자는 사단의 실현을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취할

50) 『孟子』, 「公孫丑上」: 孟子曰: “人皆有不忍人之心. 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治天下可運之掌上. 所以謂人皆有不忍人之心者, 今人乍見孺子將入於井, 皆有怵惕惻隱之心. 非所以內交於孺子之父母也, 非所以要譽於鄉黨朋友也, 非惡其聲而然也. 由是觀之, 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

51) 『孟子』, 「公孫丑上」: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52) 『孟子』, 「公孫丑上」: “凡有四端於我者, 知皆擴而充之矣, 若火之始然, 泉之始達. 苟能充之, 足以保四海.”

53) 『孟子』, 「告子上」: “人性之善也, 猶水之就下也.”

54) 이철승, 「유가 철학에 나타난 사람 본성론의 구조와 현실적 의미 - 성선설과 성악설의 구조와 의미를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제36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395~399쪽.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였다. 이 때문에 맹자는 만물이 모두 나에게 갖추어진다고 여겼다.⁵⁵⁾ 맹자의 관점에 의하면 도덕성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을 평화롭게 하므로 만물이 나에게서 나온다. 맹자는 “그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그 본성을 알고, 그 본성을 알게 되면 하늘을 안다.”⁵⁶⁾고 말하며 마음이라는 사람의 내면과 본성을 밀접하게 관련시켰다. 여기서 본성은 하늘과 관련되는데, 이는 천작(天爵)의 비유를 통해 하늘이 사람에게 도덕성을 부여하였다는 맹자의 천명사상이 「진심상」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맹자의 관점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도덕성을 향해 일정하게 나아갈 수 있다. 사람의 최종목표는 오로지 내면의 도덕성이기 때문이다. 다만 도덕성을 향해 진실로 다하여 나아가는 과정은 매우 긴 시간이 걸리고 한 번에 바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따라서 맹자는 사람이 도덕성을 유지하는 마음의 형태를 항심(恒心)으로 설정하고 이를 영구하게 지녀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도덕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부동심(不動心)]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맹자에게 이러한 부동심은 영구적이다.

55) 『孟子』, 「盡心上」: “萬物皆備於我矣.”

56) 『孟子』, 「盡心上」: “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矣.”

2) 부동심과 항심

맹자는 도덕적 행위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도덕성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부동심(不動心)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어떠한 유혹에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인 부동심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손추가 물었다. “선생님께서 제나라 경(卿)이나 재상의 자리를 맡아서 도를 행할 수 있다면, 비록 이로 말미암아 패도(霸道)나 왕도(王道)를 행하더라도 이상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다면 마음을 움직이겠습니까?” 맹자가 말하였다. “아니다. 나는 40세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⁵⁷⁾

맹자의 ‘나는 40세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공자의 ‘40세에 미혹되지 않았다’라는 것과 같다.⁵⁸⁾ 맹자와 공자 모두 어떤 유혹에서도 도덕성이 흔들리지 않는 자세이자 마음을 이야기하였다. 맹자의 부동심은 외부의 어떠한 유혹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 상태이면서, 이를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실천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다.

맹자는 용기를 예시로 들어 부동심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는 육체적 위협을 참으면서도 모욕을 당하면 참지 않고 복수하는 북궁유(北宮黶), 전쟁하면서 상대방을 무서워하지 않는 모습의 맹시사(孟施舍)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맹자는 이들 중에서 맹시사의 행동이 증자의 행동과 비슷하다고 보면서, 증자의 행동을 부동심이라고 여겼다.⁵⁹⁾ 옛날에 증자는 자양에게 “너(자양)는 용기를 좋아하는가? 나는 일찍이 선생님(공자)에게 큰 용기에 대해 들었다. 스스로 돌이켜서 곧지 않으면, 비록 거칠고 추레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스스로 돌이켜서 곧다면 비록 천만의 사람이라도 내가 가겠다.”⁶⁰⁾라고 말하였다.

57) 『孟子』, 「公孫丑上」: 公孫丑問曰 “夫子加齊之卿相, 得行道焉, 雖由此霸王不異矣. 如此則動心?” 孟子曰 “否. 我四十不動心.”

58) 朱熹, 『孟子集註』, 「公孫丑上」: “孔子四十而不惑, 亦不動心之謂.”

59) 『孟子』, 「公孫丑上」: 曰 “不動心有道乎?” 曰 “有. 北宮黶之養勇也, 不膚撓, 不目逃, 思以一豪挫於人, 若撻之於市朝, 不受於褐寬博, 亦不受於萬乘之君, 視刺萬乘之君, 若刺褐夫, 無嚴諸侯, 惡聲至, 必反之. 孟施舍之所養勇也, 曰: ‘視不勝猶勝也, 量敵而後進, 慮勝而後會, 是畏三軍者也. 舍豈能爲必勝哉? 能無懼而已矣.’ 孟施舍似曾子, 北宮黶似子夏. 夫二子之勇, 未知其孰賢, 然而孟施舍守約也.”

맹자는 북궁유의 용기를 칼로 위협받아도 받아치는 용기로 표현하였고, 맹시사의 용기를 이기기 힘든 적과 만나더라도 나아가는 용기로 여겼다. 이 때문에 맹자는 맹시사가 남과 싸우는 모습을 증자와 유사한 것으로 여겼다. 맹자에 따르면 증자는 용기를 기르는데 자신에게 내재한 정직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맹자는 증자의 실천적 용기를 도덕성의 발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증자를 본받아 부동심을 이루는 방법을 사람의 내면에서 찾고자 하였다. 맹자에게 부동심은 스스로 돌이켜 올곧은 모습이다. 맹자는 부동심을 이루는 방법으로 호연지기(浩然之氣)의 배양을 주장한다. 맹자는 호연지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말하였다. “말하기 어렵다. 그 기(氣)는 지극히 크고 굳세니, 곧음으로 기르고 해침이 없으면 천지의 사이에 가득하다. 그 기는 의(義)와 도(道)에 짝하니, 이것이 없으면 굶주린다. 이는 의를 모아서 생기는 것이지, 의가 습(襲)하여 취한 것이 아니다. 행하여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굶주리게 된다.”⁶¹⁾

호연지기란 맹자도 표현하기 어려운 기(氣)의 모습이다. 대신 맹자는 ‘호연지기’를 사람의 도덕성과 밀접한 의(義)와 도(道)로 연결한다. 맹자는 의(義)를 모아야지만 마음에 굶주림이 없다고 여겼다. 그는 호연지기의 생성에 대해 의를 축적하는 모습[集義]으로 표현하였다. 맹자에 의하면 사람은 집의(集義)를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점검하며 끊임없이 향상성을 가지고 내면의 도덕성을 들여보아야 한다.

그러나 맹자는 도덕성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맹자는 “반드시 (호연지기를 배양하는) 일을 하면서도 미리 기대하지 말고, 마음에 잊지 말며, 조장(助長)하지도 말아서 송나라 사람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 송나라 사람 가운데 그 싹이 자라지 않음을 근심하여 잡아당긴 사람이 있었다. 피곤하게 돌아와서 그 가족들에게 ‘오늘은 힘들구나. 내가 싹을 자라도록 도와주었다.’라고 말하였다. 그 자식이 달려가서 보니, 싹은 말랐다. 천하에 싹을 자라도록 돕지 않는 사람이 드물다. 유익함이 없다고 여겨서 그것을 내버려 두

60) 『孟子』, 「公孫丑上」: 昔者, 曾子謂子襄曰 “子好勇乎? 吾嘗聞大勇於夫子矣. 自反而不縮, 雖褐寬博, 吾不慄焉? 自反而縮, 雖千萬人, 吾往矣.”

61) 『孟子』, 「公孫丑上」: 曰 “難言也. 其爲氣也, 至大至剛, 以直養而無害, 則塞于天地之間. 其爲氣也, 配義與道, 無是, 餒也. 是集義所生者, 非義襲而取之也, 行有不慊於心, 則餒矣.”

는 사람은 싹을 김매지 않는 사람이고, 그것을 자라도록 돕는 사람은 싹을 잡아당기는 사람이다.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해친다.”⁶²⁾라고 말하였다.

맹자는 송나라 사람의 비유를 통해 호연지기를 기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잘못을 지적하였다. 맹자에게 싹을 기르는 것은 호연지기를 잘 기르는 것과 같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기르는데 미리 효과를 기대하는 것, 기르는 것을 잊어버리는 행위, 억지로 기르는 일 등을 경계하였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일을 지와 기의 일관된 상호작용으로 생각하였다.⁶³⁾ 그런데 지(志)는 인의를 중심으로 하는 도덕성과 관련된다.⁶⁴⁾ 따라서 지와 기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은 본성을 향한 일관된 모습이다. 이를 통해 맹자는 초지일관하게 도덕성을 지켜가야 하는 이유를 호연지기에 부여하였다.

맹자는 호연지기와 함께 지언(知言)을 부동심의 또 다른 장점으로 여겼다.⁶⁵⁾

“치우친 말에서 그 가려진 것을 알고, 음란한 말에서 그 빠진 것을 알고, 사특한 말에서 그 괴리된 것을 알고, 회피하는 말에서 그 궁한 것을 안다. 그 마음에서 생겨서 그 정치에 해로움을 미치고, 그 정치에서 드러나 그 일에 해를 미친다.”⁶⁶⁾

맹자는 치우친 말, 음란한 말, 사특한 말, 숨겨진 말을 해악으로 여겼다. 그는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사특한 말을 종식하고, 치우친 행위를 막아 음란한 말을 막고자 하였다.⁶⁷⁾ 이러한 말들을 바로잡아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일은 내면의 도덕성을 바르게 하는 일이다. 따라서 맹자의 지언은 내면의 도덕성을 강조한 것이자 항심을 강조한 것이다. 위와 같은 호연지기와 지언이 상호작용하여 어떠한 유혹에도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을 이루게 된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은 내

62) 『孟子』, 「公孫丑上」: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無若宋人然. 宋人有閔其苗之不長而揠之者. 芒芒然歸, 謂其人曰, ‘今日病矣. 予助苗長矣.’ 其子趨而往視之, 苗則槁矣. 天下之不助苗長者寡矣. 以爲無益而舍之者, 不耘苗者也, 助之長者, 揠苗者也. 非徒無益, 而又害之.”

63) 『孟子』, 「公孫丑上」: “志壹則動氣, 氣壹則動志也.”

64) 『孟子』, 「盡心上」: 王子墊問曰 “士何事” 孟子曰 “尚志” 曰 “何謂尚志” 曰 “仁義而已矣.”

65) 『孟子』, 「公孫丑上」: “敢問夫子惡乎長?” 曰: “我知言, 我善養吾浩然之氣.”

66) 『孟子』, 「公孫丑上」: “諛辭, 知其所蔽, 淫辭, 知其所陷, 邪辭, 知其所離, 遁辭, 知其所窮. 生於其心, 害於其政, 發於其政, 害於其事.”

67) 『孟子』, 「滕文公下」: “我亦欲正人心, 息邪說, 距詖行, 放淫辭.”

면의 도덕성을 향해 항상성을 가지고 일정하게 나아가는 모습이다.

맹자는 사람이 호연지기를 기쁨으로써 도덕 행위를 반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사람은 여러 번의 도덕적 실천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반성하고 도덕성을 기를 수 있다. 도덕성이 쌓인 사람은 내면의 도덕성을 향해 항구하게 나아가 지언의 경지에 자연스레 다다를 수 있다. 따라서 부동심은 도덕성을 항구하게 지키는 항심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이는 내면의 도덕성에 대한 고찰이자 본성에 대한 고찰이다. 맹자는 사람이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수양하는 몸가짐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2. 인격 구현의 방법과 의의

1) 자기반성

맹자는 자기반성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확충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신을 반성하고 성실하면 즐거움이 이보다 더 클 수 없다. 서(恕)를 힘써서 행하면 인(仁)을 구함이 이보다 가까운 길이 없다.”⁶⁸⁾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신을 반성하는 일을 인(仁)을 구하는 일로 여겼다. 자신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은 증자의 ‘자신을 돌이켜 정직함[自反而縮]’과 같은 문맥으로서 호연지기의 모습이다. 이러한 자기반성은 호연지기를 기르는 수양 방법이자 서(恕)를 실천하는 일이다. 이 서(恕)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⁶⁹⁾으로 역지사지의 자세이자 인(仁)의 실천 방법이다.⁷⁰⁾ 이처럼 맹자는 인을 실천하는 방법인 자기반성을 기점으로 수양 방법을 전개하였다.

맹자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 나를 어긋나게 대접하면,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 ‘내가 반드시 어질지 못하였거나, 반드시 예가 없었구나. 이러한 일에 어찌하여 이르렀는가?’라고 하였다. 스스로 돌이켜 어질었고, 스스로 돌이켜 예가 있었는데도 그 어긋남이 이로 말미암는다면 군자는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 ‘내가 반드시 충실하지 않았나보다.’라고 하였다.”⁷¹⁾라고 말하였다. 맹자는 다른 이에게 영향을 받아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하는 모습을 설명하였다. 그는 인(仁)과 예(禮)를 갖추고 있음에도 자신이 충실하게 살펴보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충실하다는 것은 자신이 본래 갖춘 선한 본성을 진실하게 발현하는 도덕적 삶을 의미한다.⁷²⁾

이처럼 맹자는 자기반성을 중심으로 수양하는 자세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자기

68) 『孟子』, 「盡心上」: “反身而誠, 樂莫大焉. 強恕而行, 求仁莫近焉.”

69) 『論語』, 「衛靈公」: “子曰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70) 이진영, 「맹자 수양론의 교육학적 연구 : 부동심(不動心)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원 교육학과 박사 논문, 2019, 140쪽.

71) 『孟子』, 「離婁下」: “有人於此, 其待我以橫逆, 則君子必自反也 ‘我必不仁也, 必無禮也, 此物奚宜至哉?’ 其自反而仁矣, 自反而有禮矣, 其橫逆由是也, 君子必自反也, ‘我必不忠.’”

72) 이철승, 「유가철학에 나타난 충서(忠恕)관의 논리 구조와 현실적 의미」, 『中國學報』 제58집, 한국중국학회, 2008, 429쪽.

반성의 수양은 타인과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한다. 맹자는 이러한 상호관계에서 발현하는 선한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이는 맹자의 “옛사람은 뜻을 얻으면 은택이 백성에게 더해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하여 세상에 드러냈다. 어려우면 홀로 그 자신을 선하게 하고, 통달하면 천하를 아울러 선하게 한다.”⁷³⁾라는 조언에서 살필 수 있다.

맹자는 뜻을 얻어 백성들에게 풍족함을 전달하고, 뜻을 얻지 못해도 자신을 수양해야 하는 인간상을 추구하였다. 이처럼 맹자는 도덕성의 발현을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깨우쳐서 천하를 편안하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람이 수양하여 통달하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맹자는 “남을 사랑했는데 친하지 않으면 인(仁)을 돌이켜보고, 남을 다스리는데 다스려지지 않으면 지(智)를 돌이켜보며, 남을 예우하였는데 답하지 않는다면 경(敬)을 돌이켜본다. 행하였는데 얻지 못할 때는 모두 돌이켜 자신에게서 구해야 하니, 그 자신이 바르게 되어야 천하가 돌아온다.”⁷⁴⁾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신의 인(仁)·지(智) 등을 반성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강조하였다. 천하를 돌아오게 하는 힘은 오래전 선왕들이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로 천하를 손바닥 위에 놓고 다스린다는 맹자의 비유⁷⁵⁾와 문맥을 같이한다.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는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과 같다.

맹자는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를 내면의 도덕성인 인(仁)을 발현한 방식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성인이 이미 마음과 생각을 다 해서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정치’를 이어지게 하여 천하를 인으로 덮어놓았다고 여겼다.⁷⁶⁾ 그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자기반성의 수양 방법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마 하지

73) 『孟子』, 「盡心上」: “古之人, 得志, 澤加於民; 不得志, 修身見於世.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74) 『孟子』, 「離婁上」: “愛人不親反其仁, 治人不治反其智, 禮人不答反其敬. 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 其身正而天下歸之.”

75) 『孟子』, 「公孫丑上」: “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治天下可運之掌上.”

76) 『孟子』, 「離婁上」: “聖人既竭目力焉, 繼之以規矩準繩, 以爲方員平直, 不可勝用也, 既竭耳力焉, 繼之以六律, 正五音, 不可勝用也, 既竭心思焉, 繼之以不忍人之政, 而仁覆天下矣.”

못하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맹자는 지속적인 자기반성을 통해 호연지기를 축적하는 방법과 선한 본성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도출하였다. 그의 수양 방법은 사람이 도덕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맹자의 관점에 의하면 사람은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추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반성의 수양을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은 항심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자기반성을 기점으로 삼아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다. 이는 당시 도구적 인간관의 만연으로 인해 피폐해지기 쉬운 개인의 인격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더할 수 있다. 이러한 맹자의 수양 방법을 따르면 누군가를 교화하기도 하고 자신이 교화되기도 한다. 맹자는 고도로 수양된 사람을 통해 교화된 사회를 추구하였다.

2) 선한 영향력

자기반성의 수양 방법은 다른 이까지 선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맹자는 수양하는 사람을 통해 자연스레 스며들고 교화되는 사회를 설명한다. 그는 “군자가 지나가는 곳이 교화되고, 보존하는 마음이 신령스럽다.”⁷⁷⁾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그는 군자의 지나가는 행동만으로도 변화되는 사회를 강조하면서 도덕성의 보존을 중시하였다. 그는 수양하는 사람을 군자와 같은 존재로 여겼다.

맹자는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은 다섯 가지이다. 때에 알맞은 비가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고, 덕을 이루어주는 경우가 있고, 재주를 통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물음에 답하는 경우가 있고, 사숙하여 다스리는 경우가 있다. 이 다섯 가지는 군자가 가르치는 방법이다.”⁷⁸⁾라고 말하였다. 군자가 다섯 가지 가르치는 방법을 살펴보면 교화의 의의를 고찰할 수 있다.

‘때에 알맞은 비가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경우’[如時雨化之者]는 마치 봄에 잎사귀들이 빗물을 먹고 자라듯이 느리고 점진적인 모습을 빗댄 것이다. 이처럼 맹자는 도덕적 성장을 식물의 성장에 비유하였다.⁷⁹⁾ 이는 송나라 조장(助長)에 관한 예시에서도 살필 수 있다.⁸⁰⁾ 맹자의 관점에서 군자는 느리지만 매일 점진적으로 누군가를 변화시켜 가르친다. 이는 도덕성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덕을 이루어주는 경우’[成德者]는 본성을 실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재주를 통달하는 경우’[達財者]⁸¹⁾는 재주와 자질에 따른 교육 방법이다.⁸²⁾ 맹자는 인의예지를 버리고 잃어버리는 이유를 사람이 재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⁸³⁾ ‘물음에 답하는 경우’[答問者]는 질문과 대답에 응하는 방식이다.

77) 『孟子』, 「盡心上」: “夫君子所過者化, 所存者神”

78) 『孟子』, 「盡心上」: “君子之所以教者五: 有如時雨化之者, 有成德者, 有達財者, 有答問者, 有私淑艾者. 此五者, 君子之所以教也.”

79) 배병대, 「『맹자(孟子)』〈'지언양기'장('知言養氣'章)〉의 도덕철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철학교육전공 박사 논문, 2019, 155쪽.

80) 『孟子』, 「公孫丑上」: “必有事焉而勿正, 心勿忘, 勿助長也, 無若宋人然. 宋人有閔其苗之不長而揠之者.”

81) 朱熹, 『孟子集註』, 「盡心上」: “財與材同.”

82) 정은재, 「先秦儒家的 教育思想에 關한 研究 : 孔子와 孟子를 中心으로」, 대구한의대 철학과 박사 논문, 2004, 117쪽.

83) 『孟子』, 「告子上」: “仁義禮智, 非由外鑠我也, 我固有之也, 弗思耳矣. 故曰: ‘求則得之, 舍則失之.’ 或相倍蓰而無算者, 不能盡其才者也.”

맹자는 항상 반성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태로 설명하였다.⁸⁴⁾ 이는 ‘물음에 답하는 경우’라 할 수 있으며, 수양의 자기반성과 연결점이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마지막으로 ‘사숙하여 다스리는 경우’[有私淑艾者]⁸⁵⁾는 스스로 자발적인 수양을 통해 본성을 돌아보는 과정을 뜻한다. 맹자는 “군자가 도(道)를 가지고 깊이 나아가니, 그 스스로 터득하고자 함이다.”⁸⁶⁾라고 말하였다. 이는 스스로 자신에게 갖추어진 인의예지를 터득하고자 한다는 의미이다. 맹자는 가르침을 통해 변화하는 것, 덕을 이루고 선한 본성을 실현하려는 것, 재주를 다하여 인의예지를 되찾는 것, 물음에 답하여 자신을 반성하는 것, 사숙하고 수양하여 터득하는 것 등을 설명하였다. 다섯 가지의 방법은 모두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수신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수양하는 사람을 군자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맹자의 관점을 살필 수 있다.

맹자는 교화의 구현 방법으로 교육을 언급하였다. 그는 “편하게 거처하더라도 가르침이 없다면 금수에 가깝다.”⁸⁷⁾라고 말하였다. 그에게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내면의 도덕성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특히 향심이 부족한 백성들⁸⁸⁾의 도덕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맹자는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쓰는 것, 그것을 백성을 재앙에 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⁸⁹⁾라고 말하였다. 그는 사람이 편하게 산다고 해도 가르침이 없는 상태를 금수로 여겼다. 맹자에게 보통 사람들이 동물과 같은 것은 재앙에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맹자는 많은 사람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제도인 ‘상(庠)·서(序)·학(學)·교(校)’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⁹⁰⁾ 맹자는 교육을 통해 당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군주와 백성의 조화로운 형태를 추구하였다. 이는 사회 차원의 도움을 요구한 것이다.

맹자는 “선한 정치는 선한 가르침으로 백성을 얻는 것만 못하다. 선한 정치는

84) 『孟子』, 「離婁下」: “有人於此, 其待我以橫逆, 則君子必自反也. ‘我必不仁也, 必無禮也, 此物奚宜至哉?’ 其自反而仁矣, 自反而有禮矣, 其橫逆由是也, 君子必自反也. ‘我必不忠.’”

85) 朱熹, 『孟子集註』, 「盡心上」: “艾, 治也.”

86) 『孟子』, 「離婁下」: 孟子曰 “君子深造之以道, 欲其自得之也.”

87) 『孟子』, 「滕文公上」: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88) 『孟子』, 「梁惠王上」: “若民, 則無恒產, 因無恒心.” 『孟子』, 「滕文公上」: “民之爲道也, 有恒產者有恒心, 無恒產者無恒心.”

89) 『孟子』, 「告子下」: “不教民而用之, 謂之殃民.”

90) 『孟子』, 「滕文公上」: “設爲庠序學校以教之. 庠者, 養也, 校者, 教也.”

백성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선한 가르침은 백성이 그것을 사랑하며, 선한 정치는 백성의 재물을 얻고, 선한 가르침은 백성의 마음을 얻는다.”⁹¹⁾라고 말하였다. 선한 가르침은 바로 도덕성을 회복하는 가르침을 말한다. 맹자는 학문하는 목적이 오직 그 잃어버린 도덕성을 찾는 것에 있다고 말하였다.⁹²⁾ 이처럼 교육은 사람이 본래 갖추어진 도덕성을 이끌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맹자는 개인의 교화로부터 가족, 국가, 천하 등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교화력은 대상이 넓어짐에 따라 영구적으로 힘써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다. 이러한 지속적인 선한 영향력은 항심과 깊게 관련된다.

91) 『孟子』, 「盡心上」: “善政, 不如善教之得民也. 善政民畏之, 善教民愛之, 善政得民財, 善教得民心.”

92) 『孟子』, 「告子上」: “仁, 人心也, 義, 人路也. 舍其路而弗由, 放其心而不知求, 哀哉! 人有雞犬放, 則知求之, 有放心而不知求. 學問之道無他, 求其放心而已矣.”

제4장 결론

본 연구는 『맹자』에 나타난 향심의 의의를 규명하였다. 맹자는 향심을 도덕성과 긴밀하게 연결하였다. 그는 내면의 도덕성을 본성으로 여겼다. 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갖추고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선한 본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꿈꾼다. 맹자는 도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동심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부동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호연지기와 지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맹자는 호연지기를 사람의 도덕성과 밀접하게 관련시켰다. 그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일을 잊지 않고 배양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 그는 호연지기와 함께 지언을 부동심의 또 다른 장점으로 세웠다. 이러한 호연지기와 지언이 상호작용하여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맹자는 꾸준한 도덕적 실천 행위를 강조하였다. 맹자는 도덕적 실천 행위를 통해 스스로 반성하여 수양하는 몸가짐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맹자의 수양 방법은 자기반성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력은 개인과 개인 간의 영향력을 넘어서 사회를 교화시킨다. 맹자는 수양을 통하여 교화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맹자』에 나타난 향심은 수양과 교화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자기반성의 수양 방법은 사람들이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밝혀준다. 사람은 자기반성의 수양 방법을 통해 외부적 문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유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격상될 수 있다.

맹자는 수양을 통하여 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올바르게 하여 남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간상을 만들어냈다. 맹자의 수양 방법은 한시라도 도덕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지속적인 자기성찰로 이어진다. 맹자는 지속적인 자기성찰을 호연지기에 반영하여 효과를 미리 기대하는 일, 마음에서 잊어버리는 행위, 억지로 수양하는 자세 등을 경계하였다. 동시에 맹자는 지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하였다. 맹자의 수양 방법은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는 행동으로서 확고한 방향을 알려준다. 이러한 확고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을 통해 점차 사회는 교화되고 안정되는 사회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교화의 선한 영향력은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추구한 점에 의의를 둔다. 맹자는 자신을 수양하여 선한 본성을 발현한 사람이야말로 사회에 어울리는 존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맹자』에 나

타난 향심은 나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쳐 사회를 평화롭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면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향심을 향산과 구별하여 그 의의를 규명한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이는 맹자의 향심이 선한 도덕성의 발현과 긴밀하게 관계하는 것으로 맹자 인본주의 철학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전

『論語』, 『孟子』, 『孟子集註』, 『書經』, 『詩經』, 『詩經集傳』, 『周易』

2. 단행본

김성재, 『갑골에 새겨진 신화와 역사: 문자에 숨은 고대인의 삶을 찾아서』, 동녘, 2000.

김태완, 『許愼의 고뇌, 蒼頡의 문자』,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7.

李學勤 主編, 『十三經注疏 2』, 「尙書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許愼 讚, 段玉裁 注, 『新添古音說文解字注』, 臺北: 洪葉文化事業有限公司, 2013.

3.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

김종현, 「‘의(義)’ 사상의 기원과 전개 : 춘추전국시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박사 논문, 2011.

고은강, 「선진(先秦) 유가 철학에서 위험사회론 -『맹자(孟子)』 ‘무항산(無恒産)’ 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제30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1.

김영민, 「맹자사상의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철학논집』 57호, 한국철학사연구회, 2018.

김정겸, 「先秦儒家의 "德" 思想에 관한 연구」, 동국대 철학과 박사 논문, 2018.

김정호, 「유교중심적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한계와 동아시아적 대안 가치의 모색」, 『정치정보연구』 제11집 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8.

문창호, 「구룡재 백봉래의 경학(經學) 일고(一考) - 『대학』과 『중용』의 관계를 중심으로」, 『儒學研究』 제38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7.

박영진, 「『尙書』 ‘性’字와 그 숨意」, 『大東文化研究』 제7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0.

박효정, 「孟자의 社會福祉 思想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동아시아사상 문화학과 석사 논문, 2016.

방문정, 「孟자의 王道政治 思想 研究」,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석사 논문, 1986.

배병대, 「『맹자(孟子)』〈'지언양기'장('知言養氣'章)〉의 도덕철학적 함의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철학교육전공 박사 논문, 2019.

백남권, 「선진 유가의 사회복지 사상 : 맹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논문, 2016.

손운경, 「맹자의 恒心論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 논문, 2010.

안병철, 「先秦儒家의 民本政治思想 研究」, 성균관대 유학과 박사 논문, 2006.

안성재, 「民主主義를 爲한 孔子의 常 修辭學 考察」, 『중국학』 제59집, 대한중국학회, 2017.

오종일, 「맹자의 정전론과 정전제도의 사상적 연원」, 『東洋哲學研究』 제37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유미림, 「지배의 정당성의 관점에서 본 맹자(孟子)의 정치사상」,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1호, 한국정치학회, 2004.

유종국, 「맹자의 保民論이 지닌 사회보장적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제65집 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3.

윤대식, 「『孟子』의 의리(義利)와 의리(義理):윤리적 교의에서 정치적 교의로의 전환」,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19집 1호, 한국시민윤리학회, 2006.

이수영, 「孟자의 正義觀에 관한 研究」, 고려대 윤리교육과 석사 논문, 2007.

이애란, 「『맹자』 「곡속(穀觶)」장 분석을 통해 바라본 성선(性善)과 도덕적 확장」, 『유교사상문화연구』 제59집, 한국유교학회, 2015.

이진영, 「맹자 수양론의 교육학적 연구 : 부동심(不動心)을 중심으로」, 고려대학원 교육학과 박사 논문, 2019.

이철승, 「유가 철학에 나타난 사람 본성론의 구조와 현실적 의미 - 성선설과 성악설의 구조와 의미를 중심으로-」, 『東洋哲學研究』 제36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이철승, 「유가철학에 나타난 충서(忠恕)관의 논리 구조와 현실적 의미」, 『中國

學報』 제58집, 한국중국학회, 2008.

이철승, 「孟자의 ‘浩然之氣’ 사상에 대한 朱熹와 王夫之의 관점 비교」, 『유교사상문화연구』 제57집, 한국유교학회, 2014.

이철승, 「민주주의의 법치와 유가의 덕치 문제」, 『哲學研究』 106호, 철학연구회, 2014.

전병욱, 「인(仁)과 서(恕): 욕망의 호혜적 공감능력 : 맹자(孟子)의 욕망관을 중심으로」, 『철학연구』 41호,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0.

정병현, 「孟자의 人性論에 關한 研究」, 동국대 철학과 박사 논문, 2016.

정우식, 「孟자의 王道政治思想 研究」. 성균관대 동아시아사상 문화학과 석사 논문, 2012.

정은재, 「先秦儒家의 教育思想에 關한 研究 : 孔子와 孟子를 中心으로」, 대구한의대 철학과 박사 논문, 2004.

홍완표, 「孟子 思想을 통한 企業經營哲學 研究」, 성균관대 유학과 박사 논문, 2009.